



주 제:	“메시아”	“주님 수난 성지 주일”	2009년 4월 5일
복음 묵상:	[마르 14,1-15,47]	[이사 50,4-7]	[필립 2,6-11]

오늘 수난 복음은 주님의 수난과 죽음을 아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손에 나뭇가지를 들고 크게 환영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노래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그토록 열심히 환영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고대하던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전능하신 힘을 지닌 구세주였습니다. 이제 그들의 구세주가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다윗 왕조의 위대함을 세상에 다시 한번 드높일 것이라 한껏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때 오늘날의 슈퍼스타가 부럽지 않을 인기를 누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얼마 후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던 군중들이 완전히 돌변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예수님을 영웅처럼 떠받들던 바로 그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는 다분히 철저하게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폭력과 무조건적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주장하셨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크게 기대를 걸었던 유대인들은 실망한 나머지 예수님을 죽이려는 데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군중들의 모습은 우리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요? 우리들도 그때 그 군중처럼 예수님께 오직 현세적인 행복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순절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타까지 묵묵히 가셨는지 말입니다. (서울 허영엽 신부님 강론중에서)

◆ 지도자 말씀

인간의 귀는 듣는 귀 몸으로 듣는 귀가 있습니다. 귀로 듣는 귀는 듣는 순간 빠져 나가지만 몸으로 듣는 귀는 몸이 하나기 때문에 빠져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복음이 된다고 그를 불상해지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사는 것이란 포기가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 하느님께 가는 날 내 삶에게 정리할 시간이 우리 신앙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면 사순절 찬미 감사와 묵상회와 기도회 찬미 감사기도로 함께 해야 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입으로 익숙해지고 무리 맘 몸 익숙해져야 합니다. 오늘 젊은이 기도회 좋았고, 3주간 잘지내시고~다음에 만나실다.



◆ 예언 말씀.

- † 나는 정결한 어린양이다. 다른 누구보다도 사랑한다.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다. 그 고통 중 너희의 지난 죄가 나에게 더 컸다. 사랑하는 아이야 너의 죄 다시 가져가 고 너희를 사랑한다.
- † 나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 졌습니다. 감사와 찬미 나누시는 나의 십자가 주님께 같이 가십시오. 모든 십자가를 안아 주실 것입니다.
- † 나를 찾았고 나는 만나 나에게 매달리십시오. 내가 여러분의 눈빛을 기억하고 이 땅에 다시 온날 기억할 것입니다.
- † 난 여러분 목소리를 하나하나 들었습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 멍에 가볍게 해줄 것입니다..



**수난 복음 낭독**

성지 주일에는 긴 수난 복음이 입체낭독이 된다. 예수께서 붙잡히시기 전 날 밤 제자들과 함께 하신 부분부터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부분까지의 복음을 대체로 사제를 포함한 세 사람이 입체적으로 읽게 된다.

● 성주간 월요일: 요한 12,1-11

예수님께서서는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예수께서 살리신 라자로의 누이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 드렸다. 이에 예수께서는 이는 내 장례일을 위하여 쓸 것이라 말씀하신다.

● 성주간 화요일: 요한 13,21-33.36-38

예수께서는 오늘 제자들의 배반을 예고하십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김과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의 길은 같이 갈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 성주간 수요일: 마태 26,14-25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죽으실지 예고하신다. 유다의 행동은 그를 만드신 분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 구원의 극적인 역사를 이루게 한다. / 가톨릭 굿 뉴스에서



**1분 명상**

♡ 주님의 수난과 죽으심♡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이제 곧 닥치게 된 당신의 죽음을 아셨다.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붙들려서 죽음을 당하신게 아니라 예수님께서서는 죽음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을 미리 아셨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터인데 그 사람도 지금 나와 함께 먹고 있다." (마르 14,18) 최후의 만찬에서 '넘겨주는 자'와

'넘겨지는 자'의 만남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 하면 주님께서서는 '넘겨주는 자'를 통하여 그 뒤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 모사를 꾸미는 사람들, 침묵으로 방관하는 군중들을 보고 계신다. 그런데도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몸과 피를 배반자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주신다.

주님께서서는 당신께 닥쳐올 수난과 죽음을 아시고 슬픔과 고뇌에 사로잡히셨다. 주님께서서는 근심과 번민에 싸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남아서 나와 같이 깨어 있어라." (마태 26,38) 죽음을 목적으로 둔 주님의 심정이 어떠하였는지를 헤아릴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게 된다. 죄 외에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던 주님께서서는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짚어지셨다.

**오늘의 말씀 사랑:**

“우리는 하느님께서 또다시 구해 주시리라고 희망합니다(2 코린 1,10).”